

2013년 운중 고등학교

성매매 · 성폭력 예방교육

2013. 11. 08.

임 정 혁 강사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A. 성매매에 대한 신화해부

흔히 성매매를 통해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한다. 그래서인지 등 록금이 너무 비싸다하는 요즘, 성매매에 뛰어드는 학생들도 증가했다는 보 도가 보인다. 하지만 이는 현실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현실 속 성매매 종 사자(주로 여성)는 꿀을 수 없는 빗과 빗의 사슬에 매여 있다. 청소년의 경 우도 예외가 아니어서 가출 후 청소년 성매매로 돈을 벌겠다 생각하는 청소 년의 경우, 초기에는 약간 돈을 벌수도 있겠지만 시간이 갈수록 폭력과 범 죄에 노출되는 경우가 매우 많은 것이 현실이다.

이에 대한 연장선상에서 어떤 이들은 아예 성매매를 특구화 시켜 산업을 육성하자는 주장을 펼치기도 한다. 말하자면, 성매매 종사여성들도 돈을 벌 고, 이번 기회에 아예 국가 경제도 성장시키자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사실 과 다른 것으로서, 가령 태국의 예를 보면, 확실히 알 수 있다. 성매매로 인한 사회적 비용지출은 이를 뛰어 넘고 말 것이다.

또 이렇게 얘기를 지속하다보면 성욕은 사람의 본능이기 때문에 절대 없 어질 수 없다 생각하는 이들이 있다. 그러나 과연 그런 것일까. 사람에게는 두 가지의 본능이 있다. 그것은 종족 번식에의 욕구와 생존에의 욕구이다. 이는 모두 생존이나 번식 등과 직결된 것으로 이를 벗어나면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들이다.

하지만 성욕의 경우는 ‘쾌락’을 추구하고자 하는 욕구가 발현된 것으로 어디까지나 조절 가능한 것이며, 또한 시대와 문화에 따라 다른 개념으로 발전해 온 것이다. 가령 어떤 곳은 신체의 일부만 노출을 해도 성충동이 일 어나는 곳이 있다하는 반면, 어떤 곳은 아예 옷을 벗고 다녀도 강간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즉, 성욕은 문명에 대한 이성의 작용이란 측면 이 강하다는 것이다.

이렇게 성매매는 필요악이며 절대 없어질 수 없다는 주장은 성매매를 통 해 이익을 보는 집단이 주장하는 것이다.

B. 성매매와 성폭력의 상관관계

얼마 전 한 10대 소녀가 에이즈에 걸린 채 성매매를 했다는 보도가 충격 을 주었다. 이는 필자 역시 마찬가지인데, 사건자체가 주는 충격은 물론 조 금 자세히 10대 소녀, 청소년 성매매, 에이즈, 언론보도 어느 것 하나 걸리 지 않는 게 없었다. 뭔가 잘 못 되도 한참 잘못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필자가 이런 느낌을 받게 된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을까.

언론보도를 보니 그냥 10대 여성이 아니다. 지적장애 2급의 소녀이다. 이 소녀는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정신병원에 입원했다 만난 20대 남자와의 성관계에서 에이즈에 감염 되었다한다. 그리고 병원에서 나온 뒤 찜질방과 여인숙 등을 전전하며 생활을 했고, 생활비를 벌기 위해 성매매에 나서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점이 중요하다.

보건사회연구원의 작년 보고에 따르면 청소년 성매매 동기 1위가 바로 생활비 마련(40%)이었다. 그 다음이 유흥비 마련(37%)이었는데, 이 역시 가출청소년 등 위기 청소년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은 즉, 청소년의 삶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말하자면 개인의 문제 이전에 이들이 이렇게 나서게 된 복지와 인권의 문제가 연관되어 있다는 얘기다.

이번 사건 역시 이점을 보아야 한다. 이 소녀에게 모든 도덕적 비난을 쏟아붓기 전 우리는 왜 이 소녀가 성매매에 나설 수 밖에 없었나를 보고, 이에 상응하는 사회적 합의와 변화를 이끌어내야만 제2 제3의 경우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성매매는 성폭력을 감소시키거나 성욕의 해소를 통해 감정을 완화시키는 기능보다는 오히려 상품화 된 여성의 몸과 성에 쉽게 접근하고, 이런 경험을 통해 여성을 대상화 또는 물화시킨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이 때, 대상이 된 여성은 상황에 대한 통제권이 전혀 없고, 자발적으로 그만 둘 수조차 없는 수동적 존재로 전락되기에 성매매는 기본적으로 폭력적 속성을 공유한다. 따라서 10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역시 성폭력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해야 하고, 성매매를 시도했던 이들은 돈과 성을 매개로 한 폭력의 가해자들인 것이다.

이렇게 청소년 성매매에 나서는 자들의 특징은 일단 성매매 자체에 관대하고, 연령대를 가리지 않는다는 데 있다. 즉, 성매매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경험이 이들의 사고와 판단을 무기력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여기에 그들 자신의 내면에 자리 잡은 열등감이나 일반 여성과의 관계성에 대한 문제가 복합적으로 얹히며 훗날 성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예 : 김수철). 그러므로 이들은 반드시 강한 처벌과 동시에 꾸준하고도 집중적인 교육과 치료가 병행되어야만 할 것이다.

C. 성폭력 원인에 대한 다양한 접근

성폭력이 일어나는 원인은 무엇일까. 어떤 여성운동가는 "습관" 이라 얘기하기도 한다. 성구매를 하는 습관, 접대 문화 속에 여성을 부르는 습관 같은 성매매 습관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런 비합리적인 습관은 여자는 남자를 위해 존재하는 기껏해야 2등 시민이란 인식을 갖게 할 것이라 이야기 한다. 일면 일리 있는 말이다. 그러나 성폭력은 양성간의 문제 뿐 아니라 아동과 동성 간에도 이뤄지는 것이기에 이는 한계가 있는 주장이라 할 수 있다.

또 다른 학자들의 연구는 일탈행동을 얘기하기도 하고, 문화를 얘기하기도 한다. 갈등주의적 접근도 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는가를 보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말하자면 현상에 대한 연구로써는 그 가치를 인정할 수 있으나 그 이면에 있는 보다 근본적인 이유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그렇다면 그 이면에 깔린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것은 인간의 존엄성이 훼손되는 작금의 물신주의와 힘과 권력에 의지한 채 객체화 된 사람의 성을 지배하려는 인간의 본성이라 하겠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자. 먼저, 우리 사회전반의 풍토에 만연해 있는 물신주의는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못하고, 하나의 "객체"로 인식하게 한다. 즉, 인격과 그 존엄성을 보지 못하고, 단순한 대상으로만 보게 한다는 것이다. 객체로 전락해버린 인간의 몸과 성은 더 이상 존중받을 대상이 아니게 된다. 하나의 물건처럼 사고, 팔며 성적 욕구의 만족을 위한 "도구"가 되어 버리게 된다.

또한 지배와 통제 욕구라는 인간의 본성은 내가 상대방보다 우위에 있다는 힘과 권력의 차이를 통해 본격적으로 드러나게 된다. 이러한 불평등한 위치는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릴 수 있는 눈을 가리고, 집단의 문화에 결탁하며 내 자신을 은폐하고, 반복 지속되게 된다. 또한 자신의 연약함을 강자 앞에서는 숨기다 약자 앞에서 야수적 본성으로 표출하며 피해자에게 찢지 못할 상처를 주게 된다

자, 이제 이런 관점으로 성폭력을 다시 보도록 하자. 우선 성희롱이 발생하는 원인은 무엇인가. 이것은 성희롱에 대한 법령이 형법이 아닌 남녀고용평등법에 제시된 것부터 생각할 수 있다. 남 녀 간의 사회적 위치와 힘의 차이가 바로 성희롱을 일으키는 원인이라 본다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여성 상사가 남자 부하직원을 성희롱 하는 것도 이해되고, 심리적 우위에 있는 남성이 여자 상사를 반권력적 성희롱 모델에 따라 성희롱 하는 것도 이해되게 된다. 이들에게 성희롱 대상자는 더 이상 인격체가 아니고 내 위치와 힘을 이용해 성적 유희를 즐기거나 희롱할 수 있

는 도구가 되어 버린 것이다.

두 번째로 성폭행 역시 마찬가지이다. 일부는 여성의 야한 옷이 성충동을 일으켜 우발적으로 범행이 일어나게 한다 하지만 실제 성폭행 사건은 70% 이상 계획된 범죄이다. 또한 동성간에도 성폭행이 일어나고, 아동에게 가해지는 잔혹한 범죄를 보면 어떠한가. 이를 보며 필자는 나보다 강한 자에게는 굽신거리다 조금이라도 약한 자에게는 그 태도가 돌변하는 노예근성 같은 지배욕과 동물적 본성을 인정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과연 이러한 마음이 필자 개인만의 것이라 쉽게 치부해버릴 수 있는 것일까.

D. 정리하며

성매매는 성폭력 증가와 직결되어 있는 것이다. 성매매가 증가할수록 여성에 대한 공격성이 증가하며, 이는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이란 극단적인 형태로 표출되곤 한다. 따라서 성매매가 성폭력을 감소시킨다거나 사회의 배설통로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으며 오히려 우리는 성매매를 감소 혹은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성매매에 노출되고, 이를 실행하고픈 유혹에 빠지는 청소년이 하루가 다르게 증가하는 이 때. 또 가정적인 불운과 폭력, 상처 때문에 집 밖으로 나설 수밖에 없는 아이들이 증가하는 이 때. 과연 우리는 이 아이들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 이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부과되는 화두일 것이다.

한편, 이 강의안은 오프라인 때 진행될 강의의 중요 꼭지만을 뽑아 서술한 것이다. 지면의 한계 상 모든 내용을 자세히 서술할 수는 없었다. 이 강의안에 있는 내용과 강의안 외에 있는 교육내용은 오프라인 강의 때 각 각의 시간배분을 통해 설명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내용구성상 간략하게 정리된 초반부는 오프라인 강의 때 더욱 자세히 설명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